진시황의 실족

(요11:1~16)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진시황의 실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진시황의 실족'

세계 8대 경이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진시황의 능묘, 병마용갱입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00여년 경에 처음으로 오늘의 형태의 중국의 모양으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고,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고, 지금은 불에 타 없어졌지만 아방궁의 흔적만 보아도 그 거대한 궁전을 지을 만큼 전횡을 휘둘렀던 황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천하를 통일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세계역사를 바꾼 사람 100인' 중에 18위로 들어갑니다.

18위 앞으로는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사도바울,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18위로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보다도 더 세계사에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제국의 부귀영화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을 놓기가 싫었으면, 병마용갱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1호 병마용갱이 길이가 230미터로 축구장 2개를 이어놓은 길이에 폭이 62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6000명의 흙으로 만든 군인들이 175~196cm까지 실물보다 좀 큰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병마용갱 2호와 3호까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건물도 들어있고, 하여간 살아있을 때 황제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놓기 싫어서 죽은 다음에도 그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8대 경이 중의 하나인 병마용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을 떨고 또 3천 명의 동자를 동방, 우리 제주도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한다는 둥 난리를 쳤는데, 정작 49살에 다섯 번째 전국 시찰을 하던 중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음에 맞서서 병마용갱을 만들고, 또 수도인 함안에다가 270개의 궁전을 지어서 지하도를 파서 270개의 궁을 지하도로 다니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비밀에 부쳐서 자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았는데, 49세 때 정작 5차 순행 길에서 죽은 다음에는 시신을 수도 함안으로 옮기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신하들이 황제의 시체가 썩어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거 위신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인 생선을 잔뜩 담은 마차를 황제의 시신 옆에 같이 끌고 가게 해서 그 냄새를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 4~5년이 지난 뒤에 그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중에 8, 9, 10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를 않아요.
'유대 땅에 가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유대 땅을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오기 직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유대 땅으로 가시려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어지는 얘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데 죽이려 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지금 주님은 죽음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을 고려해서 행동하지 않느냐?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행동을 결정하고, 육체의 죽음을 피하려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하고, 육체의 죽음을 염려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정한다면 그게 바로 실족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이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라든지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는 것이다.'
'절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고려해서 죽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는 것이다.'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법에 의하면 진시황을 사람들이 세계 8대 경이라고 칭찬하고, 빛나는 문화유적을 남겼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 길이 230m 폭이 60m가 넘는 그 병마용갱에 들어있는 6000개의 도용들, 그리고 실물크기의 말과 수백 개의 마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진시황이 죽음이 두려워서 발버둥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나타난 흔적이라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8대 경이도 아니고, 빛나는 문화유적도 아니고,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흔적이 그렇게 나타났는

데, 왜 그렇게 흔적이 굉장한가 하면 중국 그 큰 영토를 장악하고 전횡을 휘두르던 황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버둥대다 넘어진 그 흔적이 컸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버둥대다가 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병원에도 가고 자기가 치료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버둥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병마용갱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방어책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요즘 늙는 게 싫어서 피부에다 뭘 주입하고, 뭘 맞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피부에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바르고 … 이 모든 게 다.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내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삶은 달라질 겁니다.

자, 낮과 밤은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은 그렇게 병마용갱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며 난리를 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밤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의 진면목이 보이지 않아서 실족한다는 얘깁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행동하고, 피해서 행동하려고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진다는 겁니다.
더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요.
건강검진 받다가 죽은 사람 얘기를 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급성 폐렴인가 걸려서 죽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낮과 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랬겠죠? 적도 부근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죽기를 무서워하므

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매여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깁니다.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너머의 세상이 낮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밤이라는 겁니다, 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곳이 어딘가 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늘로 직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아버지께 가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내 마음에 낮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하늘에서 결정된 마지막 뜻일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할 것도 피할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것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실족이란 얘깁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 마음이 가지 못하고, 십자가 이편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 몸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지하고 몸에 근거돼서 붙어있으면서 이 세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실족하는 거라는 얘기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으로 가자!' 할 때 주님이 유대 땅으로 가자는 결정을 왜 하신 겁니까?
마음이 아버지께 가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땅을 가지 말자고 하느냐? 너희가 행동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을 피하려는 그 이유로 결정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어둠 속에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야 될 근거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있으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행동의 이유가 돼야 되지, 왜 이 육체의 죽음이 행동의 이유가 돼야 되느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려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죽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죽음이란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성경이 보여준 얘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목 베임을 당하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거듭 차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이 잠이 신앙인으로서의 저의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런 잠, 내일 죽는데, 내일 목 베임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것.
또 낮에 마음이 머물러, 십자가 너머의 세상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서 머물러서,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볼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사도바울은 말끝마다 노래처럼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내가 지금이라도 이 육체를 떠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나…'
이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 육체를 떠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썩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육체의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어떨 때? 우리가 낮에 거할 때,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육체의 죽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여 지는 그런 시점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 왜냐하면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기뻐하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는 걸 고백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이끌려가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옆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 몸의 죽음을 볼 때, 이 죽음의 몸은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의 마지막 뜻이고, 그 마지막 뜻인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온전히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테니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죽게 되면.

'그런데 왜 유대 땅에 가는 것을 너희는 가지 말자고 하느냐?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람에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점점 더 강하게 임박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는 행동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베드로가 잠을 자고, 바울이 내가 지금이라도 육체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마음상태가 우리의 마음상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뭡니까?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됐다고 자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진시황의 자리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잘난 자리가.

그 육체, 생선 절인 마차 틈에 끼어서 다 썩어가는 육체가 수도로 돌아오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사람이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70만 명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병마용갱 1호 2호 3호를 만드는 그런 짓을 합니다.

진시황의 실족, 우리에게는 남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너머의 낮의 세상으로 오늘도 마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8대 경이요 빛나는 문화유적이요, 아닙니다.
썩어서 생선 비린내와 섞일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갖고 있는 전횡을 휘두르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실족의 흔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실족의 순간이 내 삶에서는 더 이상 없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낮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